

〈서평〉

제주전래동요 연구의 초석

- 윤치부의 『제주전래동요사전』(1999, 민속원) -

좌 혜 경*

제주전래동요 자료가 정리되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다. 필자 역시 전래동요에 관심을 갖고, 몇 년간 조사를 하고 몇 편의 글을 쓴 경험이 있는 바 자료의 집대성은 필요한 작업임을 절실히 실감해왔었다.

구비문학 연구에 있어서 한 지역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현장론적 연구 방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현장을 조사 연구하여 그 지역의 역사, 사회, 자연, 인문 등의 여러 분야를 섭렵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적인 연고가 있는 연구자에게는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편자는 제주 태생이며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착으로 구비문학에 관심을 갖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으로 “한국자장가연구”를 제출한 바 있다. 자장가는 노래하는 사람이 성인이어서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와는 다르나,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부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요로 분류되곤 했었다. 자장가를 연구하며 가졌던 동요에 대한 관심과 제주교육대학에 적을 둔 것이 책을 내게 된 구체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전래동요연구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우선 초보적 기교로서 전래동요는 문학과 음악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이다. 전래동요에 나타나는 사설이나 음악은 다른 어느 장르에 비해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서도 가장 단순하다. 전래동요는 천진난만하고 무구(無垢)에서 나타난 음악, 문학적 현상으로 관습과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래동요의 총체적인 연구는 사회 혹은 민속현상을 고찰 가능케 한다. 비록 옛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생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전래동요가 존재하는 사회를 파악함으로써, 동요연구를 한층 입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래동요 연구를 통해 교육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는데, 특히 전래동요는 아이들 전통놀이와 함께 불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통놀이인 경우 집단적이고 협동적이며, 활동성이 큰 놀이적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현대 아이들이 부족하기 쉬운 단결심을 증용할 수 있으며 부족한 운동과 활동성, 대범한 인간성을 함양하는 덕성교육의 일환으로 전통놀이의 경험과 지식은 참고가 될 만하다.

특히 제주의 전래동요는 한반도와 일본 동북아를 연계하는 항로의 거점으로서의 문화적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곧 제주의 전래동요는 한반도의 동요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많고, 또 일본의 동요와도 유사한데, 인간의 보편적이고 공통된 심리현상과 함께 문화의 수수관계나 전파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된다.

이러한 전래동요 연구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아직 연구수준은 그리 깊지 못한 형편이다.

이번 윤치부 교수가 『제주전래동요사전』에서 소중한 자료들을 정리한 점은 전래동요 연구의 초석을 마련한 아주 값진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편자는 각 자료마다 기존 자료집의 출전, 현장자료에 대한 채록지역, 제보자, 채록연도 등 자료에 대한 구체적 조사 개황(概況)과, 노랫말 어석(語釋)을 꼼꼼하게 붙여 놓았다. 이는 동요를 연구하는 다른 지역의 연구자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같은 노래이나, 약간이라도 변이(變異)된 노래들인 경우도 모두

망라하여 구비 전승 이론을 추출케 할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한편, 기존 동요분류는 제재나 사설의 내용에 따른 분류가 주를 이루었다. 제주도의 전래동요는 크게 동식물에 관한 제재를 노래한 동식물요, 천체의 움직임이나 기상의 변화를 노래한 천체기상요, 놀이하면서 부르는 유희요, 어희요, 풍소요, 자장요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노래의 기능성(機能性)에 따라 크게 유희요와 주술요, 노동요로 대별했다.

아이들이 생활은 곧 유희와 연결되므로 대부분의 동요가 유희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새나 곤충, 식물들을 가지고 놀면서 어떠한 상태가 변하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노래를 풍소유희요에 분류한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이 저서를 바탕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첨가해두고자 한다.

전래동요는 음악이면서 문학이어서 음악과 문학의 변이 양상을 전부 조사 채록하여 '비교총보'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민속현상에서 원형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음악적인 변이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 동경대학은 일본전래동요인 '와라베우타'를 1961년부터 1969년까지 도쿄(東京)지역과 그 일대를 조사하여, 고이즈미후미오(小泉文夫) 교수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음악적인 면을 분석 비교총보(比較總譜)를 만들고, 사설을 정리 1969년에 자료집과 연구서를 내었다. 우리의 전래동요 역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실감된다.

구비자료의 생명력은 현장이다. 유희요에 따른 유희의 방법과 특성 등을 설명하고 구연현장의 소개가 있으면 노래의 입체적 상황 파악이 훨씬 용이하다. 곧 제주의 전통 유희요와 유희를 재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비디오 영상물들의 제작과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제주전래동요사전』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현장 교육을 하는 선생님,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 할 것이다.